

LIBRARY NEWS

산업자원부 「유비쿼터스 컴퓨터그래픽스응용 지역기술혁신센터(TIC)」 지정

건·학·이·념

기독교 정신의 구현

교 훈

진리·참조·봉사

제 9호 2005년 10월

도서관 소식(반년간)

발행인 : 박동순 / 발행처 : 중앙도서관 T.051-320-2065

최첨단 민석기념도서관 신축

부산 대학가에서 최대 - 연면적 3779평 규모

부산시내 대학가에서 최대 규모 최첨단 시설로 설계된 도서관이 동서대에 세워진다. 동서대 교직원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월 6일 오전 10시 30분 IC빌딩에서 민석기념도서관 기공식을 가졌다. 우리대학에서 기념비적인 건물이 될 이 도서관은 2007년 2월 28일 준공돼 새 학기 때 학생들을 맞이한다. 민석기념도서관은 무지개 탑 위 경사지(중앙도서관 옆에 건립된다.



이 자리는 사상구 북구 부산진구 김해 까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우리대학에서 전망이 가장 좋은 곳이며, 부지면적 2879평에 연면적 3779평 규모(지하 1층 지상 5층)로 신축된다.

박동순 총장은 기공식 축사에서 "앞으로 민석기념도서관 민석스포츠허브 대학교회가 하나의 세트처럼 연결된다"며 "이는 공부 운동 신앙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석기념도서관은 경사지 땅과 바위를 지하 18m 깊이로 파낸 뒤 그 위에 짓는다. 10t 트럭 1만대 분량의 흙 바위를 들어내는 대규모 공사이며, 외형적으로 독수리가 비상하는 모습으로 캠퍼스 건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됐다. 내부적으로도 다양한 첨단 시설로 이용자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김성일 건설본부장은 "대단히 어려운 공사이지만 대학 시공사 설계사가 3위 일체가 돼 훌륭한 도서관을 탄생시키겠다. 그러나 공사기간 동안 학생과 교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위논문공동이용안내

학위논문원문공동이용협의회



열린대학과 대학 생산 학술자료의 공유를 위하여 대학에서 생산된 자료를 대학 내 구성원만이 아니라 타 대학에도 제공함으로써

지식자원을 공유하고 범국가적 정보 공유 체제를 조성하기 위한 학술교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서울대 주도로 조직되어 8월 현재 전국의 150개 대학이 참여하여 40여만 건의 학위논문원문을 이용할 수 있다.

학위논문공동이용협의회(이하 학공협) 사이트

▷서비스 개시일 : 2005.9.20 ▷사이트 주소 : <http://thesis.or.kr>

▷이용가능 원문 : 40 여만 건

▷이용범위 : 동서대학교 학내에서만 이용 가능

문의 : 학술정보팀 박광종(pkj@dongseo.ac.kr)

중앙도서관 50대 추천도서

도서관 이용자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서비스 확대, 지식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독서 능력 향상과 면학을 장려하기 위한 도서관 문화 행사의 일환으로 올해도 동서대학교 중앙도서관 추천도서를 선정하여, 독후감 공모 및 당선작 시상 행사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니 많은 호응과 동참을 바랍니다.

<2005년 중앙도서관 추천도서 독후감 공모 요강>

▷독후감 대상작 : 선정도서 중 1편

[2면에 계속]

지역인사칼럼

도서관 하면 일반서민들에겐 그렇게 친숙한 느낌이 들지 않을 것이다. 특히 나는 6.25 전쟁이 한창 진행되던 해에 태어나 보릿고개도 경험했고 또한 많이 배우지도 못했기에 책 하고는 별로 연관이 없는 세월을 지내 왔다. 이런 나에게 언젠가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는 성경말씀이 깊이 각인 되어져 이에 힘을 얻고



부산교통공단
주례역부역장
이재만

그때부터 50 평생을 도전하면서 살아오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 몇 번 낙방의 고배를 마시면서도 1979년에 어렵게 공무원이 되었다. 그 후 1987년에 부산교통공단으로 근무지를 옮겨 일하게 되었다. 나는 6남매의 자녀를 둔 가장이지만 평소의 소신대로 만학의 꿈을 이루기 위해 2002년도에 동서대학교에 입학하여 지금은 국제통상학 전공 4학년 졸업반이 되었다.

지난 2004년과 올해 4월23일 "세계 책의 날"에 본인이 주례역 부역장으로 근무하는 것을 알고 동서대학교에서 도서관의 소장본 중 여유가 있는 책 500여권씩을 2년간 계속 지하철 문고로 기증해 주었다. 지난해 책을 기증 받는 순간 동서대학교 학생이라는 사실이 가슴 뿌듯했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와 야간학생이라는 이유로 강의만 듣고 도서관에 한번도 가보지 못한 것이 후회스러웠다. 그리고 그때부터 학교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갖게 되었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본교 학생들에게도 가족 같은 느낌이 들어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려고 애쓰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가끔 시간을 내 평소 생소하게만 느껴지던 도서관을 찾게 되었다. 그 곳에 들를 때 마다 그 어떤 곳에서도 느낄 수 없는 정숙함과 아늑함, 그리고 특별히 어느 층을 가더라도 청결한 분위기와 직원들의 친절함 미소와 응대에 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게 되었다. 또한 동서대학교의 학생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도 갖게 되었다. 이러한 나의 마음이 자녀들에게도 전달되었는지 이제 하나 남은 막내도 동서대학교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표명하곤 한다. "아빠가 다니는 동서대학교가 부산에서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뜨는 대학이라고 학교의 선생님들이 동서대학교를 아주 쳐준다"고 사랑을 한다. 잘하면 부자 동창생이 나올 것 같다. 평소 지하철을 타는 승객들이 지하철 문고를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대부분의 책들이 전집류라서 그렇게 호평을 받지 못했는데 동서대학교에서 기증한 1천권의 책은 대부분 단편 소설이라 읽기도 쉽고 재미가 있다고 하며 주례역에서 소장하고 있는 책을 제일 많이 이용한다고 한다. 지난 2002년과 2003년에는 냉정역, 그리고 2004년과 2005년에는 주례역에 양서를 기증한 도서관에 다시금 감사를 드리며 계속하여 동서대학교의 무궁한 발전과 세계속의 대학으로 발돋움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1면에서 계속]

- ▷제 출 처 : 동서대학교 중앙도서관 1층
- ▷마 감 일 : 2005년 10월 14일
- ▷시 상 : 우수작 1편, 가작 3편, 장려 5편
- ▷응모자격 : 동서대 교직원·학생·중앙 도서관 등록 지역주민
- ▷발표 및 시상식 : 2005년 10월 26일
- 문의 : 학술정보팀 박광종(pkj@dongseo.ac.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 홈페이지 참조)

구분	주제	서명	저자	출판사
1	인문	예술심리학	이모영 외역	학지사
2	인문	꿈의 해석	프로이트	홍신문화사
3	인문	통섭	에드워드 윌슨	사이언스북스
4	인문	지식인의 두 얼굴	폴 존슨	을유문화사
5	인문	한자 백가지이야기	시라카와 시즈카	황소자질
6	인문	목적이 이끄는 삶	릭워렌	디모데
7	소설	창가의 토토	구로아나키 테츠코	프로메테우스 출판사
8	소설	11분	파올로 코엘료	문학동네
9	소설	등대지기	조창인	밝은세상
10	소설	해변의 카프카	무라카미 하루키	문학사상사
11	소설	그리스인 조르바	니코스 카잔차키스	열린책들
12	소설	재미나는 인생	성석제	강
13	비소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미치 앨봄	세종서적
14	비소설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스펜서 존슨	진명출판사
15	비소설	파페포포 메모리즈	심승현	홍익출판사
16	비소설	그남자 그여자	이미나	중앙M&B
17	비소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김혜자	오래된 미래
18	비소설	나무야 나무야	신영복	돌베개
19	비소설	나의 생명이야기	황우석	효형출판
20	비소설	나무로 깎은 책벌레 이야기	김진송	현문서가
21	비소설	문학의 숲을 거닐다	장영희	생터사
22	비소설	사람풍경	김형경	아침바다
23	비소설	내 인생의 한 사람	안도현	한길사
24	비소설	지경	풍몽룡	청림출판사
25	비소설	미운오리새끼의 출근	메트 노가드	생각의 나무
26	비소설	인생이란 무엇인가	톨스토이	동서문화사
27	경제,경영	유비쿼터스의 혁명	이홍주 외	이코북
28	경제,경영	광고심리학	김완석	학지사
29	경제,경영	CEO 만철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안철수	김영사
30	경제,경영	언젠가 우리 모두는 이렇게 경영하게 될 것이다	수버어 차우더리	뜨인돌
31	경제,경영	부자들의 개인도서관	이상건	랜덤하우스 중앙
32	경제,경영	책 웰치 위대한 승리	잭웰치	청림출판사
33	과학	갈기도 하고 아니 갈기도 하고	로알드 호프만	까치
34	과학	인류진화의 역사	로빈 매키	다림
35	사회	미래를 읽는 기술	피터 슈워츠	비즈니스북스
36	사회	디지털 시대의 영상 문화	최혜실	소명
37	사회	광고가 들려주는 문화 이야기	전세화	예경
38	사회	일본헌법 제9조를 통해서 본 또 하나의 일본	이토 나리히코	행복한책읽기
39	사회	피 땀 눈물	리처드 던킨	바다출판사
40	사회	행복한 실천	서화숙	우리교육
41	역사	그림속의 음식 음식속의 역사	주영하	사계절
42	역사	광고로 읽는 한국 사회문화사	마정미	개마고원
43	역사	한서열전	안대회 편	까치글방
44	역사	한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	박영규	들녘
45	역사	모반의 역사	한국역사연구회	세종서적
46	역사	열린 제국	발레리 한센	까치
47	역사	미처야 미친다	정민	푸른역사
48	예술	Good Design(좋아보이는 것들의 비밀)	최경원	길벗
49	예술	예술종말 이후	아서 단토	미술문화
50	예술	성난 고갱과 슬픈 고흐 1,2	김광우	미술문화

작가와의 만남

제 17 회 작가와의 만남



제17회 작가와의 만남 행사에는 시인이자 소설가인 박상우님을 초청하여 "호미 한 자루의 문학론"이라는 주제로 2005년 04월 20일 오후 2시 중앙도서관 E-Library(9층)에서 가졌다. 이 강연에서 작가는 문학과 역사 그리고 현실에 관한 짙은 고찰과 낭만주의적 문학을 서로 대조하며, 현실 속에서의 문학을 강의하였다.

■ 박상우 약력

- ▷연보 : ·1958년 7월, 경기도 광주 생
- 1981년 중앙대학교 문예창작과 졸.
- 1988년 《문예중앙》 신인문학상에 당선.
- ▷수상경력 : ·1988년《스러지지 않는 빛》으로 《문예중앙》 신인문학상
- 1999년「내 마음의 옥탑방」으로 제23회 이상문학상.
- ▷작품 : 《독산동 천사의 시》(1994), 《말무리반도》(1997), 《내 마음의 옥탑방》(1998), 《사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1991), 《독산동 천사의 시》(1995), 《시인 마태오》(1992), 《나는 인간의 빙하기로 간다》(1993), 《호텔 캘리포니아》(1996), 《카시오페아》(1997), 《푸른 악마의 계절》(1998) 등이 있다.



집중탐구

프랑스 대학도서관의 새로운 기술

대학도서관의 디지털화

-전통적인 유형자료 도서관에서 가상도서관, 전자도서관, 디지털 도서관으로 변모했다. 인터넷 등장으로 출판물, 전화, 라디오, TV 등의 기능대체 및 유형자료 도서관기능이 축소되었고 교육과 연구 분야에 비해 대학도서관의 경우 인터넷 도입이 늦은 편이다.

정보화사회의 진전

-막대한 지식컨텐츠의 디지털화는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유통이 가능하게 하고 대학도서관내 새로운 기술개발은 유형자료도서관과 무형자료도서관의 대체의미보다는, 새로운 미디어와 생성자료에 대한 대학의 적응 필요성을 의미한다

-문서(유형)자료는 존속예상

이유: 구하기 쉬움, 사용하기 쉬움, 다루기 쉬움, 가격저렴

문서자료의 디지털자료 변환 조건

-유료소비자 확보를 통한 수익성 보장

-1920, Nice 대학과 Littoral 대학간 도서대차는 우편을 통해 이루어

제18회 작가와의 만남

제18회 작가와의 만남은, 소설가 정연희님을 모시고, <젊은이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란 주제로 2005년 10월 26일(수요일)오후 3시 중앙도서관 E-Library(9층)에서 가진다.



작가 약력

- ▷출생 : 1936. 3. 5
- ▷학력 : 숙명여자고등학교 졸, 이화여자대학교 국문학과 졸
- ▷연보 : '57 ~ : 동아일보신춘문예소설 당선<파류상>
- '58 ~ : 세계일보 근무
- '69 ~ '71 : 경향신문, 조선일보 순회특파원
- '88 ~ : 주부편지 발행인
- '00 ~ : 한국여성문학인회 회장
- '02 ~ 현재 : 이화여자대학교 문인회 회장
- '04 ~ 현재 : 한국소설가협회 이사장
- '04 ~ 현재 : 서울문화재단 초대 이사장

▷수상경력 : 대한민국문학상, 운동주문학상, 1979년 한국소설가협회상, 1981년 한국문학작가상, 2000년 제3회 김동리문학상

▷주요저서 : 석녀, 내장이 넘치나이다, 양화진, 늪에서 나온 사람, 난지도, 뽕시베리아! 눈물의 낙원, 언니의 방, 막차요 막차, 사람들의 도성(都城), 바위눈물, 여섯째 날 오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작가 이야기 : 증견작가 정연희. 이화여대 3학년 재학시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소설당선으로 화려하게 등단한 이후 대한민국문학상 운동주문학상 등을 수상하며 대중에게 다가왔다. 언제나 풋풋한 대학생 같은 그녀가 어느새 60을 넘었다. 정씨는 석녀 난지도 여섯째날 오후 등의 작품을 발표하면서 간결하고 유려한 문체, 날카로운 심리묘사로 독자에게 호평을 받고 문단의 주목을 받아왔다.

지고 가장 빠르고 저렴한 수단

-현재, 파손되기 쉬운 자료는 디지털자료 보다는 마이크로필름 상대로 전달하는 것이 더욱 안전하다고 평가됨. 이유: 정보저장기술이 상대적으로 용이

프랑스 대학도서관 혁신방향

-대학 생성 디지털자료의 조직화

-교육/과학 자료 및 정보 확산의 체계화

: 대학 정보시스템 구조화, 인터넷이용 등 정보비용 증가 추세

- 학생, 교수, 연구원의 정보기술/관리에 필요한 수단확보

프랑스대학 혁신프로그램의 요소

-핵심역량이전, 인적자원조직, 지식관리 시스템 구축

-핵심투자대상: 자금투입보다는 조직개편에 초점

행정직, 교수, 연구원, 사서, 그래픽 디자이너, 정보 오디언비주얼

엔지니어 등 전문가를 한팀으로 응집, 보완적 능력 결집: 비용/기간

-대학도서관 관계자에 대한 계속교육/연수

: 자료/정보서비스 책임자, 행정직, 행정책임 교수 등에 대한 대학도서관 관련 정기적 교육/연수가 필요함



국제관계학부 전현중 교수

[다음호에 계속]

이 한권의 책

데미안을 읽고...

오늘은 과학, 경제, 사회 등의 전반적인 발전으로 인간의 수명이 많이 길어졌고, 나 또한 오늘을 살아가니 이런 흐름 속에 함께 흘러가는 것은 부인 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내 인생의 반쯤을 살았다고 하면 될 것 같고, 이것은 또 한편으로 지금까지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에 대한 고민이 앞으로 이만큼 계속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나름대로 합리화하여 체념하며, 수긍하며 또한 용기를 갖게 하는 책을 한 권쯤 가슴에 품고 있다는 것은 큰 위안이 된다. 이런 한 권의 책이 나에게서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다.

이 책은 헤세가 1919년 42세 때 에밀 싱클레어라는 가명으로 발표한 소설이다. 밝고, 고상한 집안의 아들인 주인공 싱클레어가 어린 시절에는 바깥 세상에서 마주치는 비열하고 야비함에 호기심과 두려움으로 아픔을 치르고, 조금 자라서는 내부로부터 솟아나는 선과 악의 대립으로 혼란에 괴로워하게 된다. 이때 데미안이라는 이상적 삶을 사는, 신비스럽기도한 철학적 청년을 만난다. 그리고 이 청년이 싱클레어의 자아 형성에 길잡이가 되는 화두를 던지게 되고 늘 그의 곁에 머문다.

많은 인생에서 그러하듯 싱클레어도 베아트리체라는 성스러운 소녀를 만나지만 결과는 오히려 극단적인 자기확대를 하게 되고 더욱 퇴폐적 생활로 빠지게 된다. 이런 중에 싱클레어는 스승으로 기대고 싶은 피스토리우스를 만난다. 그는 종교인의 집에서 태어나 종교인이 되고자 하였으나 현재는 교회에서 오르간을 연주하는 음악가이다. 그는 싱클레어가 내면의 소리에 따라 혼란스럽게 살아가는데 있어 약간의 길잡이가 되기는 하였으나, 싱클레어의 영원한 스승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어 둘은 서로 작별을 하게 된다.

이런 고통과 갈등 끝에 싱클레어는 데미안의 어머니인 에바 부인을 만나고 이 만남이 최종의 안식처로서 선과 악이 존재치 않으며 갈등과 대립이 없고 사랑만이 넘치는 신적인 형상으로 표현된다. 누구나 안길 때 평화를 느낄 수 있는 존재의 어머니라고나 할까?

싱클레어가 의문, 유혹, 호기심, 반항 등의 힘들고 어려운 긴 성장과정에서 데미안이 제시한 화두를 찾아 살아가고 이것은 결국 싱클레어가 진실의 자신을 찾아가는 길이며 길가에서 부닥치는 어떠한 것들도 진실한 나를 찾는데 한 역할을 담당 하고 있고 또한 피할 수 없으며 필요한 과정 인 것을 보여 주고 결국은 사랑의 안식처에 이르는 삶을 보여 주고 있다.

물론 어떤 면에서 이 책은 너무나 정신적 세계를 다루는 것 같아 부담스럽기는 하다. 그러나 물질적인 것이 모두인 것 같은 요즘에는 필요한 한 부분을 메울 수 있는 한 권의 책인 것 같다. 어린 시절에는 내가 싱클레어가 되어 이 책에 빠져있고, 지금도 반쯤 와 있는 인생에서 나는 많은 순간 순간 소경처럼, 귀머거리처럼 내면의 소리를 외면한 채 사회의 제도권에 머리를 숙인 겁쟁이었다. 그럴 때 마다 이불 속에서 데미안을 펼치고 행동이 동반되지 않은 가슴으로 만 그의 화두를 외치며 성장의 아픔으로 밤을 지새기도 한다.

그 화두는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새의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새는 신을 향해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프락사스다."



응용생명공학부 식품생명공학전공 정숙현교수

도서관 안내

층	내 용
9	E-Library(취업자료, 해외자료, 자격증 관련 자료) 국회도서관 검색 코너, 교양정보코너, 정보검색코너, 프린터 출력, 오디오운용실
8	인문과학실 II (400 여학자료, 700 건축/오락/체육, 900 역사) 영상문화실, 매체제작실, 교수열람실
7	Audio & Visual Library(비도서 · 매체자료실) 매체실, 각종부스(위성 · PC · DVD · LAB · AV), 정보검색, 프린터 출력
6	순수과학실(500 순수과학) - 정보검색, 그룹 스터디룸
5	사회과학실(300 사회과학, 논문) - 정보검색, 그룹 스터디룸, 개인열람실
4	응용과학실(600 응용과학) - 그룹 스터디룸, 개인열람실, 정보검색, 휴게공간
3	인문과학실(000 총류컴퓨터, 100 철학, 200 종교) 과제도서 코너, 신문열람대, 개인열람실, 사무실, 정보검색
2	참고자료실(연감, 통계, 참고도서, 간행물, 학술지) - 국회도서관 원문검색 및 출력 코너, 지역주민열람실, 정보검색, 개인열람실, 스캐너 및 출력
1	문학실(800 문학) - 신착도서 코너, 대출 · 반납(자동반납기), 정보검색, 개인열람실
B	보존서고
분관	디자인홀 - 디자인 전문 도서관(700 예술 자료), 정보검색, 스캐너
인사관 그린홀	자유열람실

영상문화실 영화 상영 안내

2005년 2학기 영화상영계획

상영날짜	상영시간	상영내용
05.10.07(금)	오후3:00-5:00	Mr. 히치 - 당신을 위한데이트 코치/월 스미스
05.10.21(금)	오후3:00-5:00	미스터 & 미세스 스미스 /브래드 피트, 안젤리나 졸리
05.11.11(금)	오후3:00-5:00	웰컴 투 동막골/정재영, 신하균
05.11.25(금)	오후3:00-5:00	우주전쟁 / 톰 크루즈, 다코타 패닝
05.12.09(금)	오후3:00-5:00	아일랜드 / 이완 맥그리거

도서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 매체제작실 담당 이세정 (clickne@hanmail.net)